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음악적성,
음악성취,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왕 수 연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음악적성,
음악성취, 음악흥미에 미치는 영향

현 경 실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왕 수 연

인 준 서

왕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대해 고루 파악함으로써 비형식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음악적 정서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국가적 음악교육 정책 결정 및 학교와 지역사회 음악활동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문제는 크게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음악활동 후의 변화'와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의 비교'로 보고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 집단 138명,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 167명, 총 305명을 대상으로 음악흥미, 음악성취, 음악적성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한 청소년들 중 68.8%의 학생들은 교회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46.6%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흥미도를 비교한 결과 흥미도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참여도, 관심도, 태도 및 가치관, 자신감의 모든 영역에서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두 집단 간의 전체 흥미도의 차이는 p 값이 .000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셋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성취도 문항의 집단별 정답률에서 모든 문항의 정답률이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의 평균에서는 음악활동 집단은 8.23, 비활동 집단은 6.73으로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p 값이 .000으로 .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넷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음악적성을 비교한

결과 리듬과 가락의 평균에서 모두 음악활동 집단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총점에서는 음악활동 집단이 53.74점, 비활동 집단이 50.70점으로 음악활동 집단이 3점 가량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t검정 결과에 따라 p값이 .000으로 측정되어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다섯째, 음악활동을 경험한 기간에 따른 흥미도, 성취도, 음악적성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한 결과 흥미도와 성취도에서 p값이 각각 .028과 .035로 측정되어 모두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회음악활동과 같은 비형식적 음악교육도 음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며,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교 음악수업에서도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수업이 되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 문제.....	6
4. 연구의 제한점.....	7
5. 용어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1
1. 청소년문화와 교회 음악활동	11
2. 음악적성과 음악성취 및 음악흥미	15
3. 선행연구	2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4
1. 연구 도구.....	24
2. 연구 대상.....	31
3. 연구 절차 및 연구 가관.....	34
4. 연구 분석 방법.....	36

IV. 결과 및 해석	37
1. 설문지의 분석	37
2. 성취도 검사의 분석	51
3. 음악 적성검사의 분석	55
4. 음악활동 기간에 따른 흥미도, 성취도, 음악적성의 차이.....	57
V.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59
2. 제언.....	61
3. 후속 연구.....	6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1. 설문지
2. 성취도 검사
3. 음악적성검사

표 목 차

< 표 1 > 설문 항목별 분류	26
< 표 2 > 성취도 문항의 분류	28
< 표 3 > 소속별 표집	31
< 표 4 > 최종 표집의 성별, 학년별 분류.....	33
< 표 5 > 검사의 절차	35
< 표 6 > 설문지 신뢰도	37
< 표 7 > 교회참석여부.....	38
< 표 8 > 교회에 다닌 시기.....	39
< 표 9 > 음악활동 참석여부와 종류	39
< 표 10 > 활동의 다양성	40
< 표 11 > 음악활동 기간	41
< 표 12 > 음악활동 집단과 관심	42
< 표 13 > 음악활동 집단과 음악수업	43
< 표 14 > 음악활동 집단과 음악이론	44
< 표 15 > 참여도 항목 비교.....	45
< 표 16 > 관심도 항목 비교.....	47
< 표 17 > 태도와 가치관 항목 비교.....	48
< 표 18 > 자신감 항목 비교.....	49
< 표 19 > 흥미도 비교.....	50
< 표 20 > 난이도와 변별도.....	51
< 표 21 > 성취도 신뢰도	52
< 표 22 > 성취도 정답률	53
< 표 23 > 성취도 총점 비교	54
< 표 24 > 적성검사 리듬 비교.....	55
< 표 25 > 적성검사 가락 비교.....	55
< 표 26 > 적성검사 총점 비교.....	56
< 표 27 > 활동의 기간 기술통계	57
< 표 28 > 활동의 기간 분산분석	5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회음악은 중세, 바로크를 정점으로 클래식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원천이 됨으로써 서양예술음악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세 초기에는 오직 교회음악만이 음악으로 인정받았고 세속음악에 대해서는 중세 후기로 가서야 그 발전 양상을 보인다.¹⁾ 이 사실은 교회음악으로 초기음악양식의 토대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음악은 다성음악, 기보법, 성악음악의 발달 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음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신호기원설, 노동기원설과 함께 의식기원설을 가장 유력한 음악의 기원으로 본다.²⁾ 그 중 의식기원설은 최초의 인류 문명 발상지들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³⁾ 지금도 존재하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민족음악들 중 다수는 종교적 배경을 통해 발전하였다. 따라서 종교음악이 음악의 발달에 미친 영향은 교회음악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적 음악교육, 특히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의 발전에는 교회음악의 공헌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

중세시대에는 교회 합창단 양성을 위해 성가대학이나 가창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들이 음악교육 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즉,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

1) 홍정수 외, 두길 서양음악사, 나남출판, 1997, p26.

2) 서한범 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도서출판 태성, 2002, p93.

3)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은 집과 신전에서 신께 기도를 했으며 이 예배에서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에서는 시바신을 찬양하는 '사마 베다'가 가장 오랜 음악 자료로 남아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종교 의식의 일부로 음악을 사용하였다. 이집트에서는 신의 화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의 지배하에 음악적 전통을 형성하였다. -김춘미 외, 고등학교 음악사, (주)교학사, 2009, pp138-143.

인 음악교육의 출발은 교회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⁴⁾

우리나라에 양악과 학교 형태의 음악교육이 들어오게 된 것은 1880년대 서양문물의 도래로 기독교 전파의 수단으로 보급된 찬송가가 그 시초가 되었다. 이 전에도 신라시대의 음성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교육기관이 맥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궁중음악의 보존과 전수를 위한 악공의 교육기관이었다. 민간교육으로는 스승의 생활권에 직접 들어가 개인교습의 형태로 비법을 전수 받는 도제식 교육이나 민중들 삶에서의 구전심수 방법이 대부분이었기에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시초를 설명하기에는 어렵다.⁵⁾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육의 시작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1886년 설립된 배재학당과 1889년 설립된 이화학당에 ‘창가’교육이 포함되면서 부터이다. 이는 종교기관에서의 예배음악의 의미를 넘어 신교육, 음악교육의 시초로 우리나라 현대 음악교육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음악교육에서 교회음악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비추고 있다.

교회에서는 중세시대의 그레고리안 성가에서부터 현대의 기독교대중음악(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 이르기 까지 형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전례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변치 않는 형식이 되었다. 따라서 음악은 예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라면 교회 안 밖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음악을 접하게 된다. 즉 교회는 학습자에게 간접적인 음악적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등의 직접적인 음악경험을 제공한다.

음악교육에서 음악경험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음악교육의 기본적인 관심사이다. 음악경험, 음악활동의 중요성은 엘리엇(David J. Elliot)에 의해 크게

4)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6, pp11-13.

5) 위의 책, pp32-38.

부각되었다. 그는 음악은 ‘음악작품’이 아니라 ‘음악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음악을 경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⁶⁾ 이는 음악을 지각하고 느끼는 내면적인 변화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악을 체험하고 표현해 보는 것이 음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의 음악 수업과 각종 사교육 및 교내 특별활동 등 매우 한정되어있으며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 기회마저 제한을 받는다. 학교교육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주로 집안의 음악적 환경이나 사교육의 경험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개별적인 사교육 및 학교 내 외 음악단체를 통한 음악활동은 그 목적과 방향 자체가 음악성과 음악적 기능, 음악적 능력의 향상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 경험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본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그 음악활동과 경험의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음악 학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음악경험과 음악활동도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비형식적 음악활동’의 대상을 교회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음악활동 중 ‘학습’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에는 각종 종교 활동과 음악 동호회, 개인적인 음악 향유활동 등이 있다. 이 중 교회의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본 논문의 서두에 밝힌 것과 같이 교회의 음악이 서양의 예술음악은 물론 우리나라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력에서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6) 권덕원,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의 음악교육 철학, 국악교육 17권, 충북: 한국 국악교육학회, 1999, p12.

설명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17세에서 19세 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경우 단순히 취미를 목적으로 음악 동호회 및 교외(校外) 음악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그러한 음악활동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악기나 특정 기능을 배우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 여긴다. 셋째, 교회의 음악활동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 및 논리적 사고를 최대한 배제한 종교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음악적 체험은 ‘인간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⁷⁾인 음악의 성격과 가장 잘 부합되는 환경이라고 여긴다.

종합하여 볼 때 음악적 경험과 다양한 활동은 그 자체가 음악의 목적이자 음악적 능력 습득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음악적 경험은 인간의 여러 지능 중 하나인 음악적 지능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을 꾀할 수 있다. 특히 교회는 예로부터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던 공간이며 예배의 순서에 따라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므로 적절한 음악환경을 제공해 왔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음악경험의 기회가 열려있어 학교교육으로는 부족한 음악적 본성의 표출 장소로 적합하다.

교회음악이 청소년들의 음악적성 및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에 의한 학생들의 자체평가였다. 특히 음악적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에 의해 평가하기 어려우며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음악성을 파악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받은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객관적인 결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회에서 경험한 음악 활동이 음악적성과 흥미유발을 향상시킴을 재 입증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음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7) 김면정, 교회음악을 통한 청소년 정서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1.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의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또한 음악적성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의 정도, 그리고 음악의 기본개념에 대한 성취도를 측정하여 음악활동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학생들이 교회에서 음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성이 향상되었음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즉, 음악활동과 학교, 그리고 생활, 이 삼자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향유 할 수 있는 자질과 인성을 키워주므로 더욱 장려되어야 함을 제시하려는 바이다.

음악활동은 지식, 느낌,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전인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⁸⁾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된 음악 적성을 발견함과 더불어 전인적 성장을 꾀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음악활동의 영향을 입증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음악적 환경과 다양한 음악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설명하며 국가적 음악교육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고자 하는데 있다.

8) 7차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p10.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다룬다.

- 1)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한 학생들이 교회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 2)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간의 음악에 대한 관심 및 흥미의 정도를 비교한다.
- 3)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간의 음악개념에 대한 성취도를 비교한다.
- 4)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간의 음악적성을 비교한다.
- 5)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한 기간에 따른 음악적성 및 흥미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한한다.

- 1)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음악적성, 음악성취 및 음악 흥미의 변화를 알아봄에 있어서 그 경험의 범위를 교회의 음악활동으로 제한한다.
- 2)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어린 아동이나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3) 본 연구는 연구 지역에 있어서 서울의 일부 학교와 교회로 제한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4) 본 연구에서는 ‘음악 성취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의 이해 영역에 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 관한 활동 영역의 성취도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5) 본 연구자가 고안한 설문지와 성취도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공인된 검사도구가 아니므로 이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성취도 검사는 문항 수의 최소화를 위해 대표성을 갖는 문항으로 축소하여 고안하였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측정방식임을 인정하는 바이다.

5. 용어 정의

1) 교회음악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 교회음악이란 세속음악 또는 일반음악에 대응한 말로써 교회의 예배 및 교육, 선교, 교제 등 교회의 문화와 각종 관례에 행해지는 모든 음악을 말한다.⁹⁾

역사적으로 교회음악은 그레고리안 찬트와 카톨릭의 미사에 사용되는 전례음악 및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 서양음악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여러 장르를 포함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교회음악의 범위를 찬송가, 복음성가, 성가 합창곡, 기독대중음악(CCM, Christian Contemporary Music) 등 현대의 한국개신교 음악문화와 관련한 장르에 초점을 둔다.

2) 교회 음악활동

교회에서는 예배의 순서와 흐름에 따라 음악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회중찬송, 입례송, 헌금 봉헌송, 목도송 등은 회중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순서인 반면 성가대 찬양과 악기 연주는 별도의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음악활동이란 전자와 같이 예배 순서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후자와 같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지칭한다.

즉 합창음악을 담당하는 성가대와 피아노, 오르간, 관현악 등의 기악반주, 현재 한국 교회 음악문화의 특징인 밴드를 동반한 찬양팀 등을 기본으로 하

9) 신미정, 교회음악이 근대 한국음악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5.

며 각 교회의 문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음악활동을 모두 포함시킨다. 하지만 교회 문화센터, 교양강좌 등 교회에서 주관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음악 사교육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제외한다.

3) 음악적성

음악적성이란 음악을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말한다. 음악적성은 성취도와 같이 학습에 의한 결과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이를 측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음악적성을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이는 음악이 소리의 예술임에서 비롯한다. 10)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적성을 소리의 인지능력으로 보고 ‘한국음악적성검사’를 통해 음악의 기본 요소인 리듬과 가락의 인지능력을 측정하였다. 소리는 그 것을 지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판단과 인지가 가능하므로 ‘듣기’는 음악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체활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성의 측정을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동적 영역으로 본다.

4) 음악성취

음악적성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라면 음악성취는 현재 학습된 음악적 기능 및 지식의 정도를 말한다. 음악 성취도에는 가창 성취도,

10) 현경실, 한국 음악적성검사, 서울: 학지사, pp21-23.

기악 성취도, 청음 성취도와 같이 특정한 기능 수행능력에 대한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 대한 인지적 영역을 성취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여 이론적 지식에 대한 성취 정도를 음악 성취도로 본다. 또한 이론적 지식에 대한 기준은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이해영역의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기초 이론으로 한다.

5) 음악흥미

음악흥미란 음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음악 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태도와 음악을 옹호하려는 마음가짐,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 즉 음악에 관한 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태도, 가치관 및 자신감에 대한 문항을 분류하여 고안하였지만 각각 구분된 요소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음악 흥미도는 이 모든 항목을 종합한 측정 점수를 말하며 흥미의 범주 안에 태도, 가치관 및 음악에 대한 자신감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로 사용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화와 교회 음악활동

1) 청소년 문화와 음악

모든 민족과 조국을 막론한 문화의 특징이라면 바로 ‘유동성’이다. 즉, 문화는 끊임없이 변동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¹¹⁾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80년대 청소년들의 문화와 현재의 청소년 문화는 외적인 요소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든 시대의 청소년문화에는 그 형태는 달라도 본질적인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아동기와 성인기를 구분 짓는 청소년기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독특한 시기이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족이나 교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동년배의 동성, 혹은 이성과의 교류를 통해 집단을 이루고 그 속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낌으로써 힘, 소속감, 안정감을 얻는다. 즉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동년배 집단은 자신의 언행과 태도의 ‘준거의 틀(Set of Reference)’¹²⁾이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들과 차별화된 그들만의 언어와 행동, 유행, 음악, 스타의 우상화 등으로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¹³⁾

둘째, 청소년 문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기성세대의 시각에 반항적, 반사회적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11) 김영우, 석태중, 교육사회, 서울:동문사, 1988, p173.

12) Sherif and Sherif, Problems of Youth, (Chicago: Aldine co), 1965, p21.

13) 김진아, 한국 기독교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교회교육의 가능성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92.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행동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기성세대의 틀 안에 그들을 가두려 한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강압과 규제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대항문화로 변질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대중매체와 인터넷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적절한 문화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적절한 문화에 길들여져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되는데 장애를 겪거나 청소년 범죄 및 정신적 장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청소년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임은 앞서 청소년의 특성에서 언급한 바 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악을 택하고 있음은 음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5년 김영자의 연구에 의하면 85%의 학생들이 음악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고¹⁴⁾ 2008년 이지연의 연구에서도 90%의 학생이 음악을 선호한다는 응답을 얻었다. 이는 시대를 아울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고 있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지연의 논문에 의하면 ‘음악을 통하여 감정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78%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7%의 학생이 ‘스트레스의 해소’, 30%의 학생이 ‘기분전환’, 19%의 학생이 ‘생활의 활력소’라고 응답하였다. 총 96%의 학생이 음악과 정서의 관련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도 음악을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14) 김영자, 교회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음악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p17.

15) 이지연,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들은 그 시기의 특성에 따라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사회 일원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선도에는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중핵이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그 도구로 사용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을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이지만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보다 효과적인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교회 음악활동

청소년들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다.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체제하의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을 주는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입시부담으로, 가정에서는 대화의 단절로,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으로, 가장 중요한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심으로 정서적 안정을 얻을 곳을 잃어간다. 그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래방이나 게임방과 같은 폐쇄적이고 은밀한 장소를 찾지 않도록 표면적이고 개방적인 환경과 여건의 마련이 시급하다.

종교기관은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평등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교회도 모든 종교기관과 같이 청소년들의 심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회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청소년 시기의 학생이 갖는 주된 관심분야나 그들

pp20-34.

의 문화를 수용하는 형식의 예배를 추구한다.¹⁶⁾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변인이 아닌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환경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심적 안정감과 만족감은 자유로운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음악과 관련한 활동 중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가대와 같은 합창활동이다. 합창은 그 본질 자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노래로 개인의 역량이나 책임을 대중에 묻혀 표출할 수 있어 비전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활동이기도 하다. 성가대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음악적인 능력의 향상 및 찬양을 통한 신앙심의 증대와 협동심도 기를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예배의 경우 대부분 찬송가 보다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기독교대중음악 위주의 찬양예배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기독교대중음악이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현대적 문화의 색깔을 소유하고 있으며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¹⁷⁾ 이종언(2004)에 의하면 15개의 청소년예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배에서 6~10곡 정도의 기독교대중음악을 부르고 있다는 응답이 49.3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찬양하는 시간은 전체 예배시간의 30%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51.95%, 50%나 차지한다는 응답도 33.76%로 높게 나왔다.¹⁸⁾

이처럼 청소년 예배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찬양시간을 이끌어가기 위한 찬양단이나 찬양팀을 조직하기도 한다. 기독교대중음악이 예배에 흡수되면서 더욱 증대되게 된 음악활동의 범위는 청소년 예배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예배의 음악활동은 대체적으로 성가대와 찬양단으로 크게 구분된다.

16) 임의수, 현대교회의 청소년 예배와 교회교육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p31.

17) 심현중, 청소년 예배에 있어서의 CCM의 역할, 배례아국제대학원, 2005, p34.

18) 이종언, 청소년예배와 예배음악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4, pp20-21.

2. 음악적성과 음악성취 및 음악흥미

1) 음악적성

음악적성은 음악을 듣는 능력으로, 음악적 소질 즉, 음악적 잠재능력을 말한다.¹⁹⁾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음악성’, ‘음악적 능력’, ‘음악적 재능’, ‘음악적 소질’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학자들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음악에 관한 타고난 능력을 의미하는 공통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하는 바와 의미에 대해서 학자마다 주관적인 견해를 주장하여 같은 용어에서도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거나 다른 용어를 동의어로 보는 등 개념상의 정의는 쉽지 않다.²⁰⁾

음악적성에 관한 또 다른 논의는 이것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다. 음악적성이 선천적임을 주장한 학자는 시쇼어(Seashore, 1938)²¹⁾가 대표적으로 그는 음악적성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고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시쇼어의 의견에 반대하여 음악적성에 후천성을 강조한 학자는 머셀(Mursell, 1937)²²⁾이 대표적이다. 그는 적절한 환경과 훈련에 의해 음악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음악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최근에 와서는 룬딘(Lundin, 1967)²³⁾과 고든(Goden, 1989)등에 의해 이 두 입장을 절충시킨 주장이 대두되었다.²⁴⁾

19) 현경실, 앞의 책, p21.

20) 조상윤, 중학생의 음악적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7.

21) Seashore(1938)는 음악에 대한 재능을 음악적 자질(Musical Capacity)과 음악적 능력(Musical Ability)로 구분하였는데 음악적성에 해당하는 개념인 음악적 자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므로 학습에 의하여 습득되거나 향상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22) Mursell(1937)은 음악적 능력과 음악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이는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되어지고 향상 될 수 있다고 보아 학교 음악교육의 목적을 음악성 개발에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3) Lundin(1967)은 음악적 능력이란 음의 장단, 고저, 화음 등의 변별력이나 시창능력, 연주능력으로 이들은 학습에 의해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음악적 자질은 우수한 음악적 정신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잠재된 천부적인 재능으로 보았다.

고든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음악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음악적성에 대한 하위요소를 음감, 리듬감, 음악적 선호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음감은 선율과 화성에 대한 음악성으로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말한다. 리듬감은 음의 속도와 박자에 관한 것으로 음의 장단(長短)과 강약의 요소를 구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적 선호도는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과 관련한 것으로 음감과 리듬감에 바탕을 둔다.²⁵⁾

음악적성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180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오고 있다. 최초의 표준화 음악적성검사는 시쇼어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음높이, 음크기, 리듬, 시간, 음색에 대한 변별력과 음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후 윙(Wing, 1960), 벤틀리(Bentley, 1966), 고든 등에 의해 다양한 적성검사 측정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이들 모두 청각지각능력 검사로 시쇼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사들이 모두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로 인정받은 것은 음악적성이 소리의 인지 능력과 깊은 관련이 깊으며 그 측정방식 역시 ‘소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을 뜻한다.²⁶⁾

음악적성과 관련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음악적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상인인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음악적성은 타고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인정받는다. 또한 9세 이전에 음악적성이 완성되어 이 후 음악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음악적성은 지능지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²⁷⁾ 이는 음악적 능력이 다른 지적 능력과 차별되는 독자적이고도 특수한 영역임을 증명한다.

24) 조상윤, 앞의 책, pp7-8.

25) 이여일, 리듬을 이용한 신체표현활동이 아동의 음악적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5.

26) 현경실, 앞의 책, pp33-38.

27) 위의 책, pp23-25.

2) 음악성취

음악성취는 음악을 통한 경험, 음악적 현상, 또는 음악과 관련된 자료들의 성과로서 음악의 완성을 말한다. 즉 음악적성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출발점이라면 음악성취는 현재까지 학습된 결과물로서의 도착점으로 볼 수 있다. 음악성취는 주로 학교 및 기타 교육 시설에서의 형식적인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지만 비형식적인 시설에 의한 학습도 음악성취에 반영된다.²⁸⁾

일반적으로 성취는 주로 두뇌 학습의 성과로 본다. 하지만 음악은 다양한 행위의 종합이므로 음악 성취 역시 어떤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보일과 라도시(Bolye & Radocy, 1987)는 실기테스트, 음악적 지식 테스트, 악보 테스트, 청음 테스트, 감상 테스트, 창작 테스트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²⁹⁾ 따라서 음악성취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위와 같은 다양한 평가 영역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음악 평가에서 음악성취 측정이 가장 중요시 되는 곳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측정하는 평가의 대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평가의 영역이 바로 성취도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습득하였는가의 여부를 측정하여 성적으로 산출하는가 하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수 방법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어 차후 학습지도계획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객관식검사, 실음지필검사, 실기검사, 서술검사, 구술검사, 기보검사 등의 방법이 있다. 교사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음악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방법을 결정해야 한

28) 백민재,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p17-18.

29) 현경실, 음악 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28집 2호, 인천: 인천대학교, 1994, p404.

다.³⁰⁾음악성취 평가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야한다는 것과 평가의 방법이 실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음악성취가 형식적인 학습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과 음악의 본질이 소리이므로 평가 역시 ‘소리’를 떠날 수 없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성취검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성취도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를 만들기가 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성취도라는 것은 교사가 가르친 내용과 학생들에게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모든 학교의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가르쳤다고 가정할 내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³¹⁾ 또한 실음중심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 교사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표준화 검사를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평가도구의 제작은 단위학교별 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음원의 선정 및 편집과 같은 도구개발의 부담이 커진다.

학생들의 음악성취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첫째, 가정이나 학교, 학급의 환경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적성, 성격, 동기, 흥미 등의 학습자 요인이다. 셋째, 선행과의 연계성, 체계적인 수업과 같은 학습 전반의 전략이다. 넷째,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체계, 교사의 능력과 같은 교수 변인이다.³²⁾ 학교와 교사는 이들 요소를 모두 최적화 시켜 향상된 음악성취가 다시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학습자의 적성이나 성격, 동기, 흥미와 같은 학습자요인에 중점을 두어 비형식적인 음악교육이 학습자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성취 향상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30) 권덕원 외, 앞의 책, pp330-331.

31) 현경실, 음악과 성취도 검사의 유형개발(초등학교 1,2학년 실음의 듣기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제 35집 증보: 한국음악교육학회, 2008, p225.

32) 백민재,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22.

3) 음악흥미

모든 학습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동기가 없으면 실행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동기는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교사가 아무리 체계적이고 완벽한 수업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되더라도 ‘학습자의 동기력’을 수업 시간 전반에 걸쳐 유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그 수업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수업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나 자료를 반드시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³³⁾ 여기서의 동기가 바로 학생들의 흥미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즉,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수업준비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 관심의 중요성은 모든 학습에 있어서도 공통적이겠지만 특히 음악수업은 그 특징상 이러한 정의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일반 주지교과와 달리 예술교과인 음악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개인의 내면적인 지각과 반응이 학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동기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태도나 느낌, 가치관 등의 정의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기능적인 평가와 함께 음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적인 영역이 바로 음악흥미인 것이다. 즉, ‘음악흥미’란 음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음악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태도와 음악을 옹호하려는 마음가짐, 애호심, 긍정적인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말로 음악에 관한 정의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음악교과는 생활에서의 음악의 활용을 매우 강조한다. 특히 2007년 고시된 7차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생활화’영역을 내용상의 큰 하

33) 권덕원 외, 앞의 책, pp189-190.

위 영역으로 제시한 것을 통해 생활화는 음악교과가 추구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비교적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학교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동기력과 흥미가 없이는 효과적인 수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수업 보다 더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 되는 음악의 생활화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증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할 수 없다.

학생들이 음악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음악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돕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음악활동 및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 즉, ‘음악에 대한 애호심’은 음악의 생활화로 이어지는 가장 큰 동기력이 된다.³⁴⁾ 학교 음악 시간을 통해 이러한 애호심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음악교과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이기는 하지만 중등학교의 경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음악 수업만으로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음악은 1년간의 1주 1시수 정도로 할당되어있어 흥미를 유발할 만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 외에 학생들이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는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지역사회 문화행사, 종교단체의 음악 활동 등이 있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음악 활동 보다는 입시와 학업에 관련한 특별활동을 권장하며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의 문화행사나 참여마당 역시 청소년들에게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 현실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선호한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을 반사회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소비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34) 7차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p17.

3.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조사

선행연구 된 논문 중에서 교회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그 영향을 음악성에 중점을 둔 연구, 그리고 음악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된 논문을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목적과 주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김면정은 교회음악이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과 연관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교회음악의 심리,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위해 교회 교회학교 중, 고등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응답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교회음악을 통해 내적인 정화와 수정, 회복의 치유적 변화로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85%이상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인 위기상황에서 교회음악을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회음악이 청소년들에게 심리, 정서적 안정 등의 치유기능을 가지며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³⁵⁾

김영자는 기독교 청소년들과 비기독교 청소년들의 도시학생과 농어촌 학생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음악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음악대학의 전공자들을 통해 교회 음악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는 음악적 환경 여건이 미숙한 농촌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미비하였지만 비교적 기독교 청소년들이 보다 음악적 성취동기와 자신

35) 김면정, 교회음악을 통한 청소년 정서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감을 갖고 있으며 자기평가 설문을 통해 시창, 청음, 감상, 연주의 능력에 있어서도 비기독교 학생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음악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중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며 그 중 성악 전공자가 44.2%로 우세하여 성악을 중심으로 발전한 교회음악의 영향이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³⁶⁾

조운경은 음악경험이 청소년의 음악적성과 타 교과 학습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음악성 측정을 위한 한국 음악적성 검사와 음악경험의 여부를 묻기 위한 설문지 및 학업성적의 평균점수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음악경험의 종류, 시작시기, 경험기간, 현재 진행여부에서 음악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음악경험과 음악성, 학업성적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음악시작시기임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53.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의 특별활동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혀 학교가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음악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³⁷⁾

2) 선행연구에 관한 논의

음악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최근의 연구로 조운경은 청소년들이 겪은 음악경험과 가

36) 김영자, 교회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음악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37) 조운경, 음악경험, 음악성,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연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2009.

정의 음악환경이 음악적성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평가되어 신뢰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음악성 향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교육 경험의 요소는 배제하고 학습의 목적이 아닌 음악활동의 영향력을 증명하고자 하며 그러한 음악활동의 대상을 교회에서의 음악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음악교육에서 교회음악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교회음악이 우리 음악이나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력에 관해 연구되어왔다. 교회음악과 청소년을 관련짓는 연구에는 ‘교회음악이 청소년의 정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교회음악이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등과 같이 청소년의 내적 변화나 심리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김면정도 교회음악이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영역인 음악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교회음악과 음악성을 관련시킨 연구는 김영자에 의해 선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이었다는 것이 단점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판단하여 응답한 내용을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영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도구에 의해 더 확실한 결론을 얻고자 한다. 또한 교회음악이 미치는 영향은 다소 광범위하므로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선행 연구와 본 연구를 차별화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도구

‘음악성’, ‘음악적 능력’, ‘음악적 기능’, ‘음악적 지식’등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음악적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음악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음악은 그 판단의 대상이 음악적 행동이므로 그 행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블룸(Bloom, 1913)과 크래스홀(Krathwohl, 1964)은 교육 목표와 행동 영역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교과목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각 영역을 고려해야 하도록 상세화하였다.³⁸⁾

모든 교과목이 이러한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겠지만 특히 음악은 소리의 예술이며 인간의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교과목으로서 인지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음악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영역에 한정짓는 것 보다 전 영역을 고루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음악에서의 인지적 영역이란 개념과 이론적 이해 능력이며 심동적 영역은 실제적 수행능력을 말하고 정의적 영역은 흥미, 태도, 습관 가치관 등의 내면적인 부분을 의미한다.³⁹⁾

또한 보일과 라도시는 평가의 기능을 크게 개인관련 기능과 집단관련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 중 개인 관련 기능을 성취도평가, 진단평가, 적성평가, 태도평가로 구분하였다. ⁴⁰⁾ 이는 음악교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학생 개인의 특정 기능에 관한 공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

38) 홍후조,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2006, p301.

39) 권덕원 외, 앞의 책, p192.

40) 위의 책, p322.

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음악 개념 이해 능력을 평가할 ‘성취도’, 음악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각 변별 활동을 평가할 ‘음악 적성’,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 태도 및 가치관 등을 포함한 ‘흥미도’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도록 하였고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방법과 도구를 다음과 같이 제작, 선정 하였다.

1) 설문조사

교회의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 정의적 영역의 측정도구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피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문항,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한 청소년들의 변화를 알기 위한 문항,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도를 비교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분한다. 흥미도를 비교하기 위한 문항은 크게 학교 음악 수업에서의 태도, 일상생활에서의 음악에 대한 관심도, 음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음악에 대한 자신감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각 항목은 다시 3문항 내지 5문항으로 세분화 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항목의 구분 및 문항 선별은 임의대로 하였으며 일부의 문항은 백민재(2004)의 논문⁴¹⁾을 참고하였다. 설문지의 항목별 분류와 개별문항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1) 백민재, 앞의 책, 2004.

< 표 1 > 설문 항목별 분류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조사 항목	문항 수
1 2 3 4 5	교회에 다니는지의 여부 교회에 다닌 기간 음악활동의 경험 여부 경험한 음악활동의 다양성 음악활동을 경험한 기간	1. 학생의 종교 및 음악활동 여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	5문항
6 7 8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는가? 학교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음악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	2. 학생들이 교회 음악활동을 한 후 느끼는 변화를 알기 위 한 항목	3문항
9 10 11 12 13	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기대의 정도 음악이론에 대한 이해의 정도 학교 음악수업에의 참여 정도 음악교사의 지시에 대한 협조의 정도 교내 음악활동 참여의 적극성	3. 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에 대 한 흥미와 태도를 비교하기 위 한 항목	5문항
14 15 16 17 18	배우고 싶은 음악분야의 유무 배우고 싶은 악기의 유무 학교 음악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 노래나 음악 감상을 즐기는 정도 영상매체의 음악에 관심을 갖는 정도	4. 일상생활에서의 음악에 대 한 흥미와 관심의 정도를 비교 하기 위한 항목	5문항
19 20 21 22 23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는 정도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에 대한 생각 음악의 대중화 일반화에 대한 견해 교내 음악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음악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과 태도	5. 음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를 비교하기 위한 항목	5문항
24 25 26 27 28	노래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음악 관련 내용에 관한 자신감 음악 수행평가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기악 실력에 대한 자신감 암보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유무	6.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 의 음악성에 대한 자기 판단을 비교하기 위한 항목	5문항

< 표 1 >은 설문지의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문항의 내용이다. 2번에
서 8번 문항은 교회음악활동 집단에 관련한 문항이므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1번 문항에서 바로 9번 문항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
문항은 28문항이며 비활동 집단이 응답하는 문항은 모두 21문항이다.

2) 성취도 검사

이론적 배경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음악성취도의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학교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평가도구로 측정하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음악수업 가운데 한번이라도 배웠다고 가정할 만한 내용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음악과 교육과정’으로 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학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국가수준의 기준이다. 따라서 학교 수업계획은 물론 방법과 평가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본 연구에서도 평가의 기준을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7차 교육과정 이해영역에 해당하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으로, 기본적인 음악이론 및 음악개념에 대한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음악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가장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전 영역을 균형 있게 하며 이론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활동과 실음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시간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선다형 지필평가 방식을 택하였다. 하지만 실음 중심 평가를 최대한 고려하여 ‘음색’요소의 항목인 12번 13번 문항은 실음지필평가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성취도 검사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에 관한 각각 2문항, 셈여림과 관련한 문항 1문항인 선다형지필평가 총 11문항과 음색에 관한 실음지필평가 문항 2문항을 포함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 표 2 >와 같다.

42) 권덕원 외, 앞의 책, pp323-324.

< 표 2 > 성취도 문항의 분류

문항 번호	영역	교육과정의 해당 학년	평가 내용
1	리듬	3학년	3/4박자를 이해하고 구분해 낼 수 있다.
2		4학년	당김음, 붓짐, 쉼표를 구분하여 4/4박자를 파악할 수 있다.
3	가락	6학년	사장조의 조표를 구분할 수 있다.
4	형식	6학년~8학년	성악곡과 기악곡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다.
5		7학년	소나타형식의 특징을 알고 있다.
6	셈여림	7학년~10학년	기본적인 셈여림표의 의미를 알고 있다.
7	빠르기	7학년~10학년	기본적인 빠르기표의 의미를 알고 있다.
8			
9	화성	8학년~10학년	악보를 보고 성부조직을 알 수 있다.
10		3학년	악보를 보고 주어진 마디에 해당하는 화음을 찾을 수 있다.
11	가락	8학년~10학년	악보를 보고 꾸밈음을 구분할 수 있다.
12	음색	7학년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구분하여 협주곡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13		4학년	현악기의 음색을 구분할 수 있다.

< 표 2 >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서양음악 이론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양음악만을 음악으로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가정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문항을 선정함에 의한다. 우리나라 음악교육 현장에서 국악을 다루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므로⁴³⁾ 난이도를 최소로 선정하는 단계에서 국악 이론을 포

43) 7차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p2.

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일부 답항에 국악의 요소를 첨가하는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실음지필평가인 12번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S.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1악장 중 피아노와 관현악 음색의 조화가 두드러지는 5분 50초 지점에서부터 약 1분간 들려주었고 13번에서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황제'(J. Haydn String Quartet Cmajor, Op.76 No.3 'Emperor') 2악장 중 처음 1분간을 들려주었다.

내용 선정의 근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나 두 번의 가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음악의 기초 기능 습득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였다.

3) 한국 음악적성 검사⁴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적성의 공정한 측정을 위해 '한국 음악적성 검사(이하 KMAT)'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KMAT은 외국의 음악적성검사를 우리나라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재개발된 것으로 현경실을 중심으로 고안된 검사도구이다.

KMAT은 음악을 배운 경험과 관계없이 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듣기 검사로 고안된 것으로 노래나 기악 능력 및 기보나 독보능력, 혹은 IQ나 학습능력과 무관하게 측정 가능하다. 또한 서양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의 음악적성도 측정할 수 있으며 9세 이상의 정상인에게는 누구나 적용가능하며 짧은 시간 안에 객관적인 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44) 현경실, 한국 음악적성 검사, 앞의 책, pp42-46.

다.⁴⁵⁾

KMAT은 리듬과 가락 두 하위검사로 구분되어있으며 각각 30문항으로 전체 6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녹음된 음원을 듣고 기입하는 실음지필평가의 방식으로 주어진 두 개의 리듬패턴과 가락패턴이 동일한지 다른지를 구별해 내는 청각테스트이다. 리듬검사에는 박자와 한국의 장단의 개념이 포함되어있는데 각 문항에 예비박을 두고 한국음악의 액센트(Accent)를 넣어 그 특징을 살렸다. 가락검사에서는 ‘조’와 한국음악의 ‘오음음계’를 사용하였고, 리듬의 요소가 배제된 똑같은 길이의 5개 음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내려가는 패턴을 제시한다.⁴⁶⁾

KMAT은 두 개의 리듬패턴과 가락패턴이 같은지 다른지를 맞춘 개수가 원점수가 되므로 채점도 용이하다. 원점수는 리듬점수, 가락점수, 종합점수의 세 종류로 구분하며 이들을 각각 백분위점수,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⁴⁷⁾ KMAT의 신뢰도는 리듬 .86 , 가락 .79이며 검사 시간은 약 22분가량 소요된다.

4) 기타 도구

실험을 위해서 작성된 설문지, 성취도 평가와 KMAT의 답안지를 한 부로 엮은 검사지와 성취도 평가의 12번, 13번 문항을 위한 악곡 2곡을 담은 CD, KMAT의 검사용 CD, 음원 재생을 위한 휴대용 음향장치(CD Player, Mp3 Player)가 검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45) 위의 책, pp16-17.

46) 위의 책, pp42-46.

47) 위의 책, pp53-58.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총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남자학급과 여자학급 각각 4개 학급, 총 8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과 동등한 비율로 교회 음악활동 집단을 표집하기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2차 실험을 하였다. 선정된 학교 및 교회와 실험에 참가한 학생의 수는 < 표 3 >과 같다.

< 표 3 > 소속별 표집

소속		남	여	총 계
일반 고등학 교	광영 고등학교	136	0	136
	광영여자 고등학교	0	146	146
교회	강북 제일교회	11	20	31
	목동 제자교회	9	7	16
	여의도 순복음 교회 1부	6	19	25
	여의도 순복음 교회 2부	9	17	26
	총 계	171	209	380

< 표 3 > 과 같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282명, 교회에서는 98명으로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총 380명이었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명과 교회에 다니지만 음악활동은 안하는 청소년 51명을 제외한 305명만을 실제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의 기준은 성취도평가와 음악적성검사에서 30%이상 공란으로 비워둔 경우로 하였다. 공란이 30%미만인 경우는 우연점수의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잘 모를 경우 공란으로 처리할 것을 미리 지시하였기 때문에 실험 대상에 포함시켜 오답처리 하였다. 교회에 다니지만 음악활동을 안하는 청소년의 경우 별도의 표집을 하기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비 기독교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교회에서의 간접적 음악활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두 표집 집단인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분류함에 있어서 성당에 다니는 학생의 위치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음악 활동의 장소로 개신교 교회를 선정하였으나 성당의 경우도 교회와 유사한 음악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외하기 곤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도 특정 종교를 지지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성당에 다니는 학생도 교회에 다니는 학생에 포함시켜 학생들 스스로 별도의 표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성당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282명의 학생 중 16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당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학생은 5명으로 집계되어 성당의 음악활동을 교회 음악활동에 포함시킴으로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적 측면을 배제한 음악활동의 영향력을 알기 위한 것이므로 음악 전공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었다. 음악 전공자는 실험 실시 시 담당 교사를 통해 파악하여 해당 학생의 답안에 별도의 표시를 하였다. 음악 전공자는 총 4명으로 피아노, 작곡, 바이올린, 실용음악 보컬을 각각 전공하였고 그 중 3명은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학생이었으며 이들 모두 해당 집단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채점 결과 다른 학생들과 구별될 만한 특징이 나타난 학생은 한 명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악전공자 대부분이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이 또한 본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음악활동의 영향력의 일부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통해 최종 표집 된 집단을 성별과 학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 > 최종 표집의 성별, 학년별 분류

학년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총 계 (퍼센트%)
남	8	13	107	128 (42.0%)
여	142	24	11	177 (58.0%)
총 계 (퍼센트%)	150 (49.2%)	37 (12.1%)	118 (38.7%)	305 (100%)

최종 선별 된 표집의 성별, 학년별 분류이다. 성별은 남학생이 128명 여학생이 177명으로 여학생이 16% 더 많다. 학년은 1학년이 150명, 2학년이 37명, 3학년이 118명으로 1학년과 3학년으로 편중 되어있다. 이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학급을 선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별된 305명의 집단은 다시 < 표 7 >의 교회참석여부에 관한 문항 반응에 따라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집단 138명, 교회 음악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 167명으로 나누었다.

3. 연구 절차 및 연구 기간

1) 연구 전반의 절차와 기간

①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계획

2008년 10월에서 11월간 연구의 주제의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하였고 2008년 12월에 연구 주제를 확정하여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2009년 1월과 2월에 걸쳐 연구 가설을 세우고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과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연구 도구 선정 및 제작

2009년 3월에는 성취도 검사와 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작성하고 2차례에 걸친 실험실시를 통해 수정 보완 하였다. 첫 번째 측정은 6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도 검사를 실험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문제 유형을 단순화 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두 번째 측정은 1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흥미도 검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흥미도 검사의 문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성취도 검사의 내용을 보다 단순화 하였다.

③ 검사의 실시

최종적으로 완성된 평가 도구를 가지고 2009년 4월 전반에 걸쳐 일반 학교와 교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남, 여 비율을 고려하여 남학교 4개 학급과 여학교 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에 따라 비기독교 학생과 기독교소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내 교회 고등부 성가대와 찬양단을 중심으로 재검사를 하였다.

④ 자료 분석 및 결과 작성

검사 결과 총 380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 하였고 그 중 분석의 가치가 있는 305명의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가공된 측정값 중에서 연구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연구 결과로 작성하였다.

2) 검사 장면의 절차 및 시간

구체적인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표 5 > 검사의 절차

절차	내용	소요시간
1	검사지의 배부	5분
2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검사 절차와 요령의 설명	
3	이름과 성별, 학년과 같은 기본 인적 사항과 설문지 1~5번의 작성 및 확인	5분
4	성취도 검사 중 실음지필평가인 12번과 13번의 음악 듣기	3분
5	KMAT의 실시	22분
6	설문지와 성취도 검사 나머지 문항의 작성	10~15분
7	검사지의 회수	

< 표 5 >와 같이 진행된 검사는 총 45분에서 50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주어진 절차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

4. 연구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엑셀(Microsoft Office Excel)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학생들이 응답한 사항을 입력한 후 SPSS 12.0 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설문지의 분석

설문지의 5단계 척도를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환산하여 문항별, 항목별, 전체 평균을 계산하였다. 단, 부정적인 응답이 더 바람직한 21번의 문항은 그 반대로 점수를 책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두 집단의 평균 값을 비교 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4번과 5번 문항의 경우 세 집단에 대한 흥미도, 성취도, 음악적성을 모두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2) 성취도 검사의 분석

성취도 검사는 정답인 문항의 개수를 성취도 검사의 원점수로 보고 원점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별 정답률 등을 구하였다. 주어진 통계 값은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음악 적성검사의 분석

KMAT에서 제시하는 측정방식에 따라 리듬점수와 가락점수, 그리고 총점의 점수를 각각 분석하였다. 학생별 정답의 개수를 원점수로 측정하여 원점수에 대해서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또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음악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회 음악활동 집단과 비활동 집단의 음악에 대한 흥미의 정도, 기본적인 음악 개념의 이해 정도, 청각 변별 능력을 비교하였다.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성취도 검사, 음악 적성검사가 사용되었고 각각에 대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설문지의 분석

1) 설문지의 신뢰도

< 표 6 > 설문지 신뢰도

Cronbach's Alpha	문항 수
.839	28

< 표 6 >은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이다.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계수는 .7이 넘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지는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가 .839로 측정되어 신뢰도가 있는 검사임을 알 수 있다.

2) 기초문항 빈도 분석

1번에서 5번 문항은 집단을 구분하고 교회 음악활동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본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번 문항]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 표 7 > 교회참석여부

응답	빈도(명)	퍼센트(%)
네	138	45.2
아니요	167	54.8
합계	305	100

교회에 다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문항이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음악활동을 하지 않는 51명의 학생들은 사전에 제외하였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한 학생의 빈도는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 교회 음악활동을 집단의 크기로 본다.

[2번 문항]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게 되었습니까?

< 표 8 > 교회에 다닌 시기

응답	빈도(명)	퍼센트(%)
모태신앙~5세	101	73.2
6~9세	13	9.4
10~13세	7	5.1
14~16세	12	8.7
17세 이후	5	3.6
합계	138	100

교회음악활동 집단을 대상으로 교회에 다닌 기간을 물어본 결과 82.6%의 학생들이 9세 이전부터 교회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직접적인 경험과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 음악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3번 문항] 교회에서 어떠한 음악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표 9 > 음악활동 참석여부와 종류

응답	빈도(명)	퍼센트(%)
성가대(찬양대)	92	66.7
찬양단(악기)	25	18.1
찬양단(보컬)	16	11.6
관현악단	4	2.9
기타	1	0.7
합계	138	100

교회에 다니는 학생 중 음악활동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한 문항이나 음악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사전에 제외하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0명이므로 분석에서 생략했다. 위의 표와 같이 본 연구의 교회 음악활동 집단은 가창활동을 주로 경험한 학생이 78.3%로 가장 많으며 기악을 주로 경험한 학생은 21%비율로 구성되어있다. 기타에는 음향장치 담당자가 한 명으로 조사되었다.

[4번 문항] 위의 보기와 같은 활동 중에서 몇 가지를 하였습니까?

< 표 10 > 활동의 다양성

응답	빈도(명)	퍼센트(%)
한 가지	76	55.1
두 가지	46	33.3
세 가지	14	10.1
네 가지	1	0.7
다섯 가지 이상	0	0.0
무응답	1	0.7
합계	138	100

음악활동의 다양성을 묻는 질문에서 55.1%의 학생들이 한 가지를 경험한 것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를 경험한 학생은 33.3%로 그 뒤를 이었다. 세 가지 이상 다양하게 경험한 학생은 10.8%를 차지하였다.

[5번 문항] 교회에서 음악관련 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였습니다니까?

< 표 11 > 음악활동 기간

응답	빈도(명)	퍼센트(%)
1년 미만	33	23.9
1년 이상 3년 미만	38	27.5
3년 이상 5년 미만	22	15.9
5년 이상	45	32.6
합계	138	100

교회음악활동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경험한 학생들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년 미만 경험한 학생은 23.9%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음악활동 집단은 대부분 1년 이상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경험한 집단으로 본다.

3) 음악활동 후의 변화 빈도 분석

6번, 7번, 8번 문항은 본격적인 비교 분석에 앞서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들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따라서 교회 음악활동 집단 138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번 문항] 교회 음악활동한 후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 표 12 > 음악활동 집단과 관심

척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다	45	32.6
그렇다	50	36.2
보통이다	36	26.1
그렇지 않다	2	1.4
전혀 그렇지 않다	5	3.6
합계	138	100

교회음악활동을 경험한 138명의 학생들 중 교회 음악활동을 한 후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50명의 학생이 ‘그렇다’, 45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 68.8%의 학생이 음악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명과 5명으로 교회음악활동이 음악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통이다’ 혹은 부정응답을 한 학생들은 교회음악활동이 관심증대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본래 음악에 관심이 있어 음악활동에 참여한 학생인 것으로 해석한다.

[7번 문항] 교회에서의 음악활동이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었다.

< 표 13 > 음악활동 집단과 음악수업

척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다	19	13.8
그렇다	45	32.6
보통이다	45	32.6
그렇지 않다	23	16.7
전혀 그렇지 않다	6	4.3
합계	138	100

교회 음악활동이 학교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모두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학생은 16.7%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3%로 부정응답을 한 학생은 총 21%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긍정응답을 한 학생은 전체의 46.4%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회 음악활동을 통해 학교 음악수업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본다.

[8번 문항] 교회에서의 음악활동이 음악이론이나 음악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표 14 > 음악활동 집단과 음악이론

척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다	12	8.7
그렇다	36	26.1
보통이다	56	40.6
그렇지 않다	28	20.3
전혀 그렇지 않다	6	4.3
합계	138	100

교회 음악활동이 음악개념이나 음악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40.6%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6.1%,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8.7%로 긍정응답을 한 학생은 총 34.8%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0.3%,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4.3%로 부정응답을 한 학생은 24.6%이다. 부정응답과 긍정응답의 차이로 보면 교회 음악활동이 음악이론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학생이 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0.6%로 매우 높으므로 전체의 학생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창이나 기악중심인 교회 음악활동이 음악이론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4) 두 집단의 흥미도 비교 분석

9번 이하의 문항은 본 설문지의 최종 목표인 두 집단의 흥미도를 비교하기 위한 문항이다. 전체 문항은 참여도, 관심도, 태도와 가치관, 자신감의 네 항목으로 분류되어있다. 각 문항과 각 항목 및 이들을 통칭한 흥미도를 집단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9-13번 문항] 학교 음악수업에 대한 참여정도의 비교

< 표 15 > 참여도 항목 비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양측)
9번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기다려지거나 기대되는 편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3.24	1.23	3.035	.003
		비활동 집단	167	2.96	1.03		
10번	학교에서 음악 수업 시 음악개념이나 이론이 이해가 잘 되는 편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3.76	1.06	2.382	.018
		비활동 집단	167	2.93	1.05		
11번	학교에서 음악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3.98	.88	4.371	.000
		비활동 집단	167	3.74	.86		
12번	학교에서 음악선생님의 지시나 지도에 잘 따르는 편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3.21	1.16	2.409	.017
		비활동 집단	167	2.26	1.11		
13번	합창대회와 같은 교내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4.31	.92	7.300	.000
		비활동 집단	167	3.74	1.13		
참여도 관련 항목의 합		음악활동 집단	138	3.50	.81	5.615	.000
		비활동 집단	167	3.02	.70		
		합계	305	3.24	.79		

학교 음악수업에서의 참여정도에 관한 다섯 가지 문항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음악활동 집단의 청소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특히 ‘학교에서 음악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는 문항과 ‘합창대회와 같은 교내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기다려지거나 기대되는 편이다’에서도 유의확률이 .003으로 나타나 이들 문항은 .01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음악에 대한 적극성과 기대심이 보다 높다고 해석한다.

모든 문항을 종합한 참여도 전반에서도 음악활동 집단이 3.5점, 비활동 집단이 3.02점으로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의확률이 .000으로 .01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 음악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증명된다.

[14~18번 문항]음악에 대한 관심 정도의 비교

< 표 16 > 관심도 항목 비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양측)
14번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싶은 음악분야가 있다.	음악활동 집단	138	4.70	.53	4.479	.000
		비 활동 집단	167	4.50	.82		
15번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다.	음악활동 집단	138	3.74	1.11	2.365	.014
		비 활동 집단	167	2.96	1.07		
16번	학교에서 음악관련 활동이 있다면 하고 싶다.	음악활동 집단	138	4.57	.68	6.173	.000
		비 활동 집단	167	4.17	.83		
17번	노래 부르거나 음악 감상 을 즐기는 편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4.25	.77	4.664	.000
		비 활동 집단	167	3.92	1.00		
18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음 악에 귀 기울이는 편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4.35	.83	3.327	.001
		비 활동 집단	167	3.81	1.13		
관심도 관련 항목의 합		음악활동 집단	138	4.31	.52	6.003	.000
		비 활동 집단	167	3.86	.75		
		합계	305	4.06	.69		

< 표 16 >에서 음악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묻는 다섯 문항모두 음악활동 집단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모든 문항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싶은 음악분야가 있다.’, ‘학교에서 음악 관련 활동이 있다면 하고 싶다.’, ‘노래 부르거나 음악 감상을 즐기는 편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음악에 귀 기울이는 편이다.’의 문항에서 0.1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관심도의 총점에서도 음악활동 집단은 4.31, 비 활동 집단은 3.86으로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며 이는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 집단이 비활동 집단보다 음악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증명된다.

[19~23번 문항]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 정도의 비교

< 표 17 > 태도와 가치관 항목 비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양측)
19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 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 이 든다.	음악활동 집단	138	4.35	.83	4.657	.000
		비 활동 집단	167	3.81	1.13		
20번	음악은 학교에서 꼭 배워 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 한다.	음악활동 집단	138	3.62	.98	6.510	.000
		비 활동 집단	167	2.88	.98		
21번	음악은 여유 있는 일부 특 정한 계층만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활동 집단	138	4.20	1.05	.119	.849
		비 활동 집단	167	4.17	.94		
22번	학교는 음악과 관련한 활 동을 더욱 다양하게 마련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음악활동 집단	138	3.75	.92	4.741	.000
		비 활동 집단	167	3.23	1.01		
23번	나에게 음악적 능력이 있 다면 음악을 진로로 선택 할 것이다.	음악활동 집단	138	4.12	1.06	4.759	.000
		비 활동 집단	167	3.47	1.26		
태도, 가치관 관련 항목의 합		음악활동 집단	138	4.00	.62	6.713	.000
		비 활동 집단	167	3.51	.66		
		합계	305	3.73	.69		

< 표 17 >에서 음악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묻는 모든 문항에 음악활동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21번 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1$). 21번 문항인 ‘음악은 여유 있는 일부 특정한 계층만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두 집단 모두 4.20, 4.17로 높은 점수를 보여 음악은 모든 사람이 즐기는 예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유의확률이 .849로 음악활동과 관련한 차이가 없었다.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모든 문항을 종합한 총점에서는 음악활동 집단의 평균은 4.00, 비활동 집단의 평균은 3.51로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값이 .000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증명된다.

[24~28번 문항]음악에 대한 자신감 정도의 비교

< 표 18 > 자신감 항목 비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양측)
24번	가창시험 시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노래 할 수 있다.	음악활동 집단	138	3.35	1.09	5.312	.000
		비 활동 집단	167	2.68	1.09		
25번	주변에서 음악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다.	음악활동 집단	138	3.08	.95	6.755	.000
		비 활동 집단	167	2.35	.93		
26번	음악 수행평가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음악활동 집단	138	3.57	1.11	5.616	.000
		비 활동 집단	167	2.81	1.23		
27번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한 가지 이상 있다.	음악활동 집단	138	3.27	1.30	5.008	.000
		비 활동 집단	167	2.53	1.13		
28번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가지 이상 있다.	음악활동 집단	138	4.25	.93	2.695	.007
		비 활동 집단	167	3.93	.81		
자신감 관련 항목의 합		음악활동 집단	138	3.50	.77	7.170	.000
		비 활동 집단	167	2.86	.78		
		합계	305	3.15	.84		

< 표 18 >에서 음악활동 집단이 음악에 대한 자신감의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문항은 .01수준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각 문항은 항목의 총점에서도 음악활동 집단이 3.50점, 비활동 집단이 2.86점으로 음악활동 집단이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앞서 비교한 모든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이다. 이는 p 값이 .000으로 .01수준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 집단이 비활동 집단보다 더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증명된다.

[전체 문항] 음악에 대한 흥미도의 비교

< 표 19 > 흥미도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양측)
음악활동 집단	138	3.83	.51	8.534	.000
비활동 집단	167	3.31	.54		
합계	305	3.55	.03		

학교에서의 수업 참여도, 음악에의 관심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및 자신감을 모두 합한 것을 흥미도로 보고 이를 종합한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평균이 3.83,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평균이 3.31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더 명확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학생별 총점을 평균 내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음악활동 집단이 76.67점, 비활동 집단이 66.3으로 음악활동 집단이 10점 가량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 값이 .000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

지 않은 학생들보다 음악에 대한 더 큰 흥미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증명된다.

요약하면 교회에서 음악활동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음악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에 대한 동기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이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과 그렇지 않다는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여 개인의 흥미정도 및 인지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2. 성취도 검사의 분석

1)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

< 표 20 > 난이도와 변별도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난이도	67	67	40	34	78	68	67	44	46	52	48	52	78
변별도	0.45	0.52	0.35	0.46	0.32	0.51	0.37	0.52	0.48	0.59	0.53	0.27	0.25

문항 난이도란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난이도는 25 미만이면 어려운 문항, 25이상 75미만이면 보통의 문항 75이상이면 쉬운 문항으로 난이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하면 본 성취도 검사는 5번 문항과 13번 문항이 쉬운 문항이며 나머지 문항은 모두 보통의 난이도를 갖고 있고, 어려운 문항은 없다.

변별도는 각 문항이 능력의 상하를 얼마나 예리하게 구별해 주는가를 의미

한다. 변별도 지수는 +0.3에서 +0.7사이에 해당하면 변별력 있는 문항이며 0.2 이하이거나 음수가 나오면 수정을 하거나 제외시켜야 한다. 본 평가도구에서는 12, 13문항이 각각 0.27, 0.25로 변별력이 낮지만 0.2이상이므로 수정이 필요한 문항은 아니다.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성취도 검사의 신뢰도

< 표 21 > 성취도 신뢰도

Cronbach's Alpha	문항 수
.642	13

< 표 21 >에서 알 수 있듯이 성취도 검사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계수의 기준인 .7에 못 미치는 수치로 측정되었다.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에는 많은 문항 수, 적절한 난이도, 높은 변별도, 좁은 범위의 내용, 충분한 검사 시간이 있다.⁴⁸⁾ 본 평가도구는 < 표 21 >과 같이 난이도와 변별력이 적절하고 < 표 21 >과 같이 검사시간이 충분했다.

따라서 본 평가도구는 교육과정 내용영역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과 각 항목에 대해 최소의 문항 수로 설정한 특성을 고려하면 보통의 신뢰도는 갖고 있다고 본다.

48) 김진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동문사, 2007, p332.

3) 문항별 정답률의 집단 간 비교

< 표 22 > 성취도 정답률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음악활동 집단 정답률(%)	비 활동 집단 정답률(%)	합계 (%)
1	3/4박자의 파악	70.3	64.5	67.1
2	4/4박자의 리듬	74.6	61.1	67.2
3	사장조의 조표	50.8	32.9	40.9
4	성악곡이 아닌 연주형태	38.4	29.9	33.8
5	소나타형식의 이해	88.8	71.3	79.1
6	셈여림표시의 순서 배열	76.6	61.1	68.1
7	느리게를 나타내는 빠르기말	69.1	67.7	68.3
8	빠르게를 나타내는 빠르기말	47.8	42.1	44.7
9	성부조직의 이해	51.9	43.4	47.2
10	화성의 파악	65.9	42.4	53.0
11	꾸밈음의 이해	64.2	63.4	48.8
12	피아노협주곡의 음색	52.2	51.5	51.8
13	현악기의 음색	84.8	73.5	78.6

< 표 22 >는 청소년들의 음악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13문제의 정답률을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이다. 모든 문항에서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악보를 보고 주어진 선율의 화성을 파악하는 10번 문항과 사장조의 조표를 찾는 3번 문항이 각각 23.5%, 17.9%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번, 5번, 6번, 13번 문항에서 10%가 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7번, 8번, 11번, 12번과 같이 5%내외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도 있다.

4) 성취도 총점의 비교

< 표 23 > 성취도 총점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양측)
음악활동 집단	138	8.23	2.59	5.049	.000
비 활동 집단	167	6.73	2.58		
합계	305	7.41	2.69		

성취도 검사를 위한 13개 문항의 정답 수를 집단별 평균으로 집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평균이 8.23,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평균이 6.73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2점 가량 높게 측정되었다. 즉, 음악활동 집단이 비활동 집단에 비해 평균 2문제 정도 더 맞췄다는 의미이다. 이 점수 차이는 p값이 .000으로 .01 수준에서 집단 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음악에 대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증명된다.

3. 음악 적성검사의 분석

1) 리듬검사의 비교

< 표 24 > 적성검사 리듬 비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양측)
음악활동 집단	138	26.87	2.81	3.534	.000
비 활동 집단	167	25.44	3.99		
합계	305	26.09	3.58		

KMAT를 통해 청소년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여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리듬에서는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의 평균은 26.87,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은 25.44으로 음악활동 집단이 조금 높게 측정되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값이 .000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음악적성의 리듬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수용된다.

2) 가락검사의 비교

< 표 25 > 적성검사 가락 비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양측)
음악활동 집단	138	26.88	3.26	3.870	.000
비 활동 집단	167	25.26	3.92		
합계	305	25.99	3.72		

KMAT를 통해 청소년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여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락에서는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이 26.88, 그렇지 않은 집단이 25.26의 평균점수가 측정되었다. 이 점수간의 차이는 p값이 .000을 나타내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음악적성의 가락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수용된다.

3) 적성검사 총점의 비교

< 표 26 > 적성검사 총점 비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양측)
음악활동 집단	138	53.75	5.39	4.298	.000
비 활동 집단	167	50.70	6.73		
합계	305	52.08	6.34		

KMAT의 리듬점수와 가락점수를 합한 점수를 음악적성의 점수로 보고 이를 각 집단별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집단이 53.75, 그렇지 않은 집단이 50.70의 평균점수가 측정되었다. 평균점수 상에서는 음악활동을 하는 집단이 3점 가량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는 t검정 결과에 따라 p값이 .000으로 측정되어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따라서 교회음악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음악적성의 더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 99%영역에서 수용되며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었다.

4. 음악활동 기간에 따른 흥미도, 성취도, 음악적성의 차이

< 표 27 > 활동의 기간 기술통계

	기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흥미도	1년 미만	33	3.83	.09
	1년 이상 5년 미만	60	3.72	.06
	5년 이상	45	3.98	.49
	합계	138	3.83	.51
성취도 총점	1년 미만	33	7.55	2.45
	1년 이상 5년 미만	60	8.03	2.27
	5년 이상	45	9.00	2.92
	합계	138	8.23	2.59
적성검사 총점	1년 미만	33	54.42	3.81
	1년 이상 5년 미만	60	52.83	5.84
	5년 이상	45	54.47	5.68
	합계	138	53.75	5.39

< 표 28 > 활동의 기간 분산분석

		제곱 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흥미도	집단 간	1.84	2	.92	3.660	.028
	집단 내	33.93	135	.25		
	합계	35.78	137			
성취도 총점	집단 간	44.47	2	44.27	3.441	.035
	집단 내	872.12	135	28.84		
	합계	916.58	137			
적성검사 총점	집단 간	88.53	2	22.23	1.535	.219
	집단 내	3893.59	135	6.46		
	합계	3982.12	137			

[5번 문항]에서 파악된 음악경험의 기간에 대한 흥미도, 성취도, 음악적성의 차이를 알고자 기술분석과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음악활동을 한 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흥미도에서 각각 3.83, 3.72, 3.98로 5년 이상 활동 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으며, 성취도점수에서는 각각 7.55, 8.03, 9.00으로 활동을 오

래 한 순서대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집단 간의 차이는 흥미도와 성취도의 유의확률이 각각 .028, .035로 측정되어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음악적성에서는 5년 이상 활동한 집단이 54.47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그 차이가 1년 미만 활동한 집단과 크게 구분되지 않으며 유의확률이 .219로 차이가 없었다. 즉, 음악활동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흥미도와 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음악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음악적성에 있어서는 경험의 다양성이나 기간의 차이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학습과 훈련만으로는 향상시키기 어려운 음악적성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음악 교육적 영향력을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즉, 교회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대해 고루 파악함으로써 학교 교육 및 사교육과 같은 형식적 교육에 의한 경험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비전문적이고 비형식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음악적 정서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며 학교 및 지역사회 음악활동 조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문제는 크게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음악활동 후의 변화’와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의 비교’로 보고 교회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 집단 138명,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 167명, 총 30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흥미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와 음악이론 습득정도를 측정할 성취도 검사, 청각 변별능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KMAT(현경실, 2004)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한 청소년들 중 68.8%의 학생들은 교회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46.6%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악이론이나 음악개념의 이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둘째, 음악활동의 기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년 미만 활동한 집단, 1년 이상 5년 미만 활동한 집단, 5년 이상 활동한 집단으로 나누어 흥미

도, 성취도, 음악적성을 비교한 결과 흥미도와 성취도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p값이 각각 .028과 .035로 측정되어 모두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5$).

셋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흥미도를 비교한 결과 흥미도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참여도, 관심도, 태도 및 가치관, 자신감의 모든 영역에서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각 항목의 p값이 모두 .000으로 0.1수준에서 입증되었다($p < .01$). 또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넷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성취도 문항의 집단별 정답률에서 모든 문항의 정답률이 음악활동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어진 선율의 화성을 파악하는 문항과 주어진 조성의 조표를 파악하는 문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13점 만점인 성취도 검사 총점의 평균에서는 음악활동 집단이 8.23, 비활동 집단이 6.73으로 나타났고 이는 p값이 .000으로 .01 수준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다섯째, 교회음악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음악적성을 비교한 결과 리듬과 가락의 평균에서 모두 음악활동 집단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60점 만점인 총점에서는 음악활동 집단이 53.74점, 비활동 집단이 50.70점으로 음악활동 집단이 3점 가량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값이 .000으로 측정되어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흥미도와 성취도, 음악적성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였으며 도출된 결과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고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음악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자신감과 표현력을 길러주어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학교외의 공간과 학업 외의 과업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주기적인 음악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드문 장소가 된다. 따라서 학교 음악수업 외에 음악활동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 보다는 교회에서 합창과 합주와 같은 음악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고 자신감을 획득하는 기회가 더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두 집단의 흥미도 하위영역 중 ‘자신감’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신감은 모든 학습의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해야하는 음악의 경우 자신감이 능력발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 음악수업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며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성취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를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집단에서 찾고자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건전한 문화를 형성해나갈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동료를 만나는 학교에서는 입시에 의한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는 학령이 증가하면서 더 심화된다.

반면, 교회에서는 학업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건전한 음악문화와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즉, 청소년들은 성가대나 찬양단 등의 음악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들 간에 친밀함을 느끼고, 여기서 얻는 또래 집단을 통한 만족이 음악에 대한 흥미로 전이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음악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며 또래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내 외의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검사 상황을 관찰한 결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일반학교에서는 검사가 음악 관련 내용임을 알고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학생들을 종종 발견했다. 이러한 학생들은 주변의 학생들이나 반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부심을 갖고 비교적 성실히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설문지의 ‘태도 및 가치관’항목의 비교 결과에서도 알 수 있으며 실험 시 관찰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 실시 당시의 학생들의 태도나 분위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교 음악수업에서 지나친 이론 중심, 교과서 중심 수업을 배제하고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이 음악에 관심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증명하였듯이 교회음악활동과 같은 비형식적 음악교육도 음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음악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활동과 체계를 마련하여 음악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바람직한 또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고교 음악수업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벗어나며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음악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후속 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음악활동의 경험에 따른 음악적 영향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교회 음악활동으로 범위를 좁혀 연구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활동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러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상을 파악하여 앞으로 실시될 ‘7차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음악교과의 생활화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지역에 있어서 극히 일부의 연령과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아동기 및 성인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조사해 보고 그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연구된 결과이므로 같은 음악활동을 경험하였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농촌과 도시 등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여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두 집단을 표집 함에 있어서 교회 음악활동 여부만을 독립변수로 보고 다른 변수들 즉, 교회 음악활동 외의 음악경험여부, 가정의 음악 환경의 정도 등은 모두 동등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무선 표집을 함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차별적으로 응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외에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음악 성취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였고 변별도와 난이도는 적절했지만 문항수가 작고 신뢰도가 낮은 결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음악 적성검사와 흥미도를 함께 측정해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문항을 최소로 하였기 때문이다. 후에 진행될 연구에서 성취도에 집중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항을 보다 세분화시켜 보다 많은 문항을 통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며 신뢰도 높은 연구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 단행본

- 고용수, 『교회에서의 청소년 지도』,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6.
- 김남수,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 서울: 요나단 출판사, 1995.
- 김미애, 『서양의 교회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1994.
- 김영우, 『석태종, 교육사회』, 서울: 동문사, 1988.
- 김진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동문사, 2007.
- 양동복, 『새로운 대중음악 CCM』, 서울: 참빛미디어, 1995.
- 현경실,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학지사, 2004.
-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파주: 양서원, 2007.
- 홍정수 외, 『두길 서양음악사』, 파주: 나남출판, 1997.
- 홍후조,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2006.

2 . 학술 논문

- 권덕원,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의 음악교육 철학」, 『국악교육 17권』, 충북: 한국 국악교육학회, 1999.
- 이관직, 『현대교회의 예배문화』 서울:한국교회문제연구소, 2001.
- 현경실, 「음악 성취 테스트의 작성 및 평가」,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28집 2호』, 인천: 인천대학교, 1994.
- 「음악과 성취도 검사의 유형개발-초등학교 1,2학년 실음의 듣기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제 35집』, 충북: 한국음악교육학회, 2008.

3. 학위 논문

- 김면정, 『교회음악을 통한 청소년 정서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영자, 『교회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음악성 발달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김은숙, 『현대 기독교 대중음악 연구- 청소년의 CCM 이해 및 영향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진아, 『한국 기독교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교회교육의 가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김효중, 『기독교 대중음악이 기독교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백민재,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신미정, 『교회음악이 근대 한국음악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심현중, 『청소년 예배에 있어서의 CCM의 역할』, 베뢰아국제대학원, 2005.
- 오누리, 『만 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이광주, 『청소년교역에 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CCM활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여일, 『리듬을 이용한 신체표현활동이 아동의 음악적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2005.
- 이종연, 『청소년 예배와 예배음악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지연,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임의수, 『현대교회의 청소년 예배와 교회교육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2004.
- 조미화, 『음악지도 프로그램이 아동의 주의산만 및 음악흥미에 미치는

-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조상윤, 『중학생의 음악적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조윤경, 『음악경험, 음악성,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연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최용익, 『예배를 통한 청소년 사역의 활성화-학생 성가대의 교회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4. 기타 문헌

-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1997.
- 『7차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학교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 김춘미 외, 고등학교 음악사, 서울: (주)교학사, 2009.
- 서한범 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서울: 도서출판 태성, 2002.
- 신귀복, 강덕원,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서울: 현대음악 출판사, 1998.
- 이홍수 외,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 서울: (주)두산, 2003.

ABSTRACT

The Effect of Church Music Activities on Teenagers' Music Aptitude, Achievement, and interest.

Wang soo ye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 of church music activities on teenagers, thereby being used as a material which coul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mu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Korea and contributing to organizing more local-level music activity groups by proving that informal music experiences such as church music activities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eenagers' emotion and aptitude.

The research problem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two parts:

- 1) the change in an ability to perform music after participation in church music activities
- 2) the comparison between teenagers highly involved in church music activities (Participants) and those who haven't participated in such activities (Non-participants).

138 participants and 167 non-participants who were randomly collected in high schools in Seoul had completed the survey to measure their musical interest, achievement and aptitude.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n the participants group, 68.8% showed that they could have an interest in music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church music activities in churches where they attend, and 46.6% answered that the activities were helpful in music classes.

Second, the participants recorded higher score in all aspects of participation, interest, attitude and confidence in music. The difference in the overall interest between two groups was significant with .000 of p-value. ($p < .01$)

Third, as a result of the specific test to measure students' music achievement, the answers of the participants in each items were more correct than that of non-participants. The average score of the participant group was 8.23 while the one of non-participant group were 6.73. Thes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p-value .000. ($p < .01$)

Fourth, in the comparison of the music aptitude test between two groups, it was clear that participants recorded the higher score than non-participants in rhythm and melody items. In addition, the overall aptitude score of participants were about 3 points higher than that of non-participants, recording 53.74 and 50.79 points respectively. The difference was also significant with .000 of p-value. ($p < .01$)

Fifth, ANOVA was used to analyze the degree of teenagers' music interest, achievement, aptitude, according to period of music experiences. As a result, .028 and .035 were respectively obtained for the degree of the music interest and achievement. These two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p-value lower than 0.05. ($p < .05$)

In short, this study proved that the informal musical education such as church music activities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everal aspects related to music improving teenagers' interest, emotion, and aptitude for music. Therefore, the variety of musical experiences and educational curricular in schools shall be promoted for teenagers. To improve the interest and entertainment of students, teachers should also try to make an effort to develop more active and creative music curriculum.

《 부 록 》

(1)설문지	-----	1
(2)성취도 검사	-----	4
(3)음악적성 검사	-----	6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왕수연입니다.

이 설문지와 평가지는 교회에서의 음악관련 활동이

청소년들의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구입니다.

본 검사의 결과는 본 연구자의 석사 논문의 자료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트림 없이 사실대로 기입해 주시어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왕수연

성별: 남 여

학년: _____ 학년

성명: _____

1.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네 ②아니요(9번 문항으로)

2.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게 되었습니까?

①모태신앙~5세 ②6~9세 ③10~13세 ④14~16세 ⑤17세 이후

3. 교회에서 어떠한 음악관련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장 오래 활동한 것을 한 가지만 기입해 주세요.)

①성가대(찬양대) ②찬양단(악기) ③찬양단(보컬)
④관현악단 ⑤기타() ⑥없다(9번 문항으로)

4. 위의 보기와 같은 활동 중에서 몇 가지를 하였습니까?

①한 가지 ②두 가지 ③세 가지 ④네 가지 ⑤다섯 가지 이상

5. 교회에서 음악관련 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였습니까?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 3년 미만 ③3년 이상 5년 미만 ④5년 이상

6. 교회에서 음악활동한 후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교회에서의 음악활동이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교회에서의 음악활동이 음악이론이나 음악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기다려지거나 기대되는 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학교에서 음악 수업 시 음악개념이나 이론이 이해가 잘 되는 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교에서 음악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학교에서 음악선생님의 지시나 지도에 잘 따르는 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합창대회와 같은 교내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음악분야(클래식, 국악, 재즈 등)가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악기가 한 가지 이상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학교에서 음악관련 활동이 있다면 하고 싶다.(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선택 시)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노래 부르거나 음악 감상을 즐기는 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음악에 귀 기울이는 편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 음악은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음악은 여유 있는 일부 특정한 계층만이 향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 학교는 음악과 관련한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3. 나에게 음악적 능력이 있다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할 것이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4. 가창시험 시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노래 할 수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5. 주변에서 음악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6. 음악 수행평가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7.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한 가지 이상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8.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가지 이상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11] 다음 악곡을 보고 문제에 답 하세요.

남 촌

김동환 작사
김규환 작곡

(가)

9. 위 악곡의 성부조직(짜임새)은 무엇입니까?

- ①단성음악 ②다성음악 ③화성음악 ④가락음악 ⑤리듬음악

10. (가)부분에 들어갈 화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①당김음 ②경과음 ③떠는음 ④지속음 ⑤꾸밈음

12. 다음 들려주는 악곡의 연주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교향곡 ②피아노 협주곡 ③피아노 독주곡 ④바이올린 협주곡 ⑤현악 4중주

13. 다음 들려주는 악곡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현악기 ②관악기 ③타악기 ④건반악기 ⑤국악기

한국 음악적성 검사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	----	---	---	------

리듬		
문항번호	같음	다름
예제 1	○	○
예제 2	○	○

가락		
문항번호	같음	다름
예제 1	○	○
예제 2	○	○

번호	같음	다름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번호	같음	다름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